

광주시, 양성평등 도시로 거듭난다

종합계획 수립 2027년까지 실행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젠더 폭력없는 안전도시 등 목표

광주시가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감소',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감소', '청년층의 성불평등 인식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또 가사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스토킹살인사건' 등 신종 젠더 폭력문제를 방지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광주시 양성평등의 청사진이다.

광주시는 '내☆일이 빛나는 양성평등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제3차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을 준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세번째를 맞은 이번 양성평등 종합정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실행하게 된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젠더 폭력없는 안전 도시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 광주시가 하위권을 기록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강해 종합등급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피해 지원 및 성 인격적 건강권 보장 등 4개의 대 과제와 11개의 중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광주시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여성영화제 지원과 영유아 놀이체험실 등 여성가족복합공간 등을 조성해 양성평등 문화콘텐츠를 지원한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양립 근대 역사문화 체험 코스 개발, 구술재료를 통한 광주 여성사 발견 등을 통해 지역 여성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의 역사 문화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일자리 환경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자와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오전 10시 출근제도를 도입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를 위해 업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감되는 연차보상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업(기관) 121개를 추가로 늘려 여성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는 업체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

또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37.6%였던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적돌봄 시설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종일돌봄 월 30만 원, 하루 4시간 돌봄 월 20만 원의 지원금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1년간 840시간이던 자녀돌봄지원을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구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4월 광주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도 활용해 틈새없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든다.

여성 폭력없는 광주를 위해 피해 지원 및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의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을 사전예방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지원, 스톱킹 피해실태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정책 연구 등으로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또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교육, 가사 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여성 청소년에게 소독기구에 상관없이 월 1만 3000원의 보건위생용품도 지원한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나주시,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 나선다

'24시간 악취통합 관제센터' 구축...선제적 대책 마련

나주시가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 최초로 '24시간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나주시는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부시장, 전담부서, 시의원,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악취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관제센터 구축은 나주 지역민들이 2015년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퇴비사업장과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나주시는 악취대책위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관제센터에는 피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관내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과 피해지역에 악취측정센서(25대), 기상

관측기(5대), 관제카메라(2대)를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나주시는 축적된 악취 데이터와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악취 발생을 예측하고 발생 경로를 추적해 선제적으로 대책마련도 준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돼지(전남 2위)를 제외한 한우·육우, 젓소, 닭·오리의 전남 최대 축산지로, 혁신도시 주변 3km 내 봉황면 일대 축사 및 퇴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가 풍향, 기압, 기온 등의 요인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악취 해소를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자 명품 혁신도시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민·관 협업, 주민과 축산농가와와의 상생을 통한 악취 저감 로드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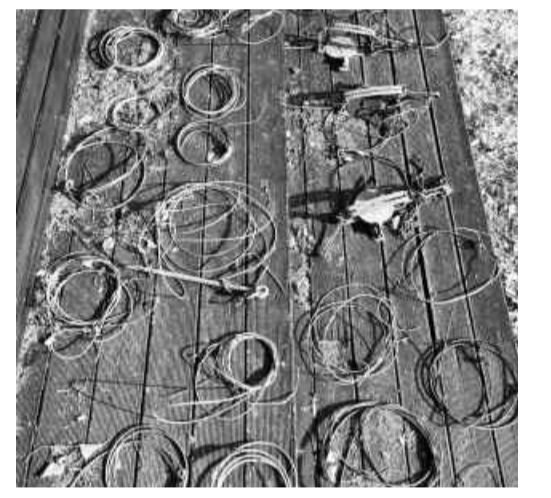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서 불법 엽구 수거

장성에서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한 밀렵꾼이 적발된데 이어 불법 엽구가 또다시 발견돼 밀렵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일 장성군 북하면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야생동물밀렵관리원,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관계자 50명과 울무 18점, 창에 4점 등 불법 엽구 22점을 수거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포획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당시 이 밀렵꾼은 창에-울무 등 불법 엽구 66점을 이용해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와 고라니 3마리 등을 포획해 방동 보관하고 있었다.

민재홍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밀렵·밀거래 처벌과 예방을 위해 불법 엽구 발견시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수거된 불법엽구 (울무 18점, 창에 4점)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책 대여 광주·전남 13곳에 'U-도서관'

광주·전남 13곳에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책을 빌릴 수 있는 'U-도서관(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 25억원을 들여 전국 37개 시·군·구에 U-도서관 45곳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U-도서관은 지하철역과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특히 자동화 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으로 교통이 불편해 도서관을 찾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광주에는 2017년부터 광산구 신장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총 24곳(동구 2곳, 서구 5곳, 남구 6곳, 북구 2곳, 광산구 9곳)이 운영중이다. 이번에 광주시 동구와 서구, 북구에 각각 1곳이 추가로 생긴다. 전남에서는 기존에 설치됐던 나주와 영암에 추가로 3곳이 생기고 고흥, 화순, 장흥에는 새롭게 설치된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주시청, 영암 시청면사무소·신북면사무소, 고흥 군청·아이행복센터, 화순 광덕문화광장과 장흥 용산면·안양면·유치면·부산면 주민센터 등 총 10곳이다. /김디안 기자 kdi@



광주시 서구 가족센터 '다(多)가치 봉사단'이 지난 18일 창작성골 커뮤니티센터에서 뜨개질 봉사활동을 한 뒤 뜨개질 작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다문화가족 인식변화 위해 적극 노력"

'다(多)가치 봉사단'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서 봉사활동

광주시 서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다(多)가치 봉사단'이 지난 18일 창작성농성골 커뮤니티센터에서 대면식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가치 봉사단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나눔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다.

이날 봉사단은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손뜨개질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줄 뜨개질 의류를 제작했다.

윤옥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수혜자에서 봉사자로서 역할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나눔의 주제로 거듭남과 더불어 이들의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의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문화사회 인식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지역곤충종목록집' 국내 최초 발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섬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6117종의 목록이 담긴 '섬 지역 곤충 종목록집'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목록집에선 국내 541개 섬에서 관찰이 확인된 곤충의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3종, 2급 9종), 천연기념물(2종), 국외반출승인 대상종(544종), 한국 고유종(188종) 등 국가 지정 관리 종 현황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번 목록집은 각종 논문과 보고서에서 확보한 섬 지역의 곤충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섬 관속식물

종목록집' 발간을 시작으로 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목록 구축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종목록집은 섬 지역별 곤충 다양성 현황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고, 법정

보호종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와 국가생물주권확립 등의 정책 수립에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